

승객 대부분 교통카드 사용...큰 혼란은 없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행 첫 날...버스 타고 시민 반응 들어보니

1일 오전 광주 첨단지구를 오가는 94번 시내버스 안. 막 버스에 오른 승객들은 '팅 빈 계단 옆' 공간을 보고 잠시 멈췄다. 승객들은 곧바로 미리 준비한 교통카드를 꺼내 버스비를 결제했지만 뭔가 허전한 듯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현금함 없이 시내버스 운행에 들어갔다. 첫날인 1일에는 첨단92번 3대, 첨단94번 4대 등 7대만 현금함 없이 첫 운행을 시작했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광주시는 2일에는 봉선37번(2대), 지원52-1번, 충효188번 등 4대의 버스에서 현금함을 추가 철거할 예정이다. 4~5월에는 도심 노선, 6~7월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외곽 노선에 적용될 예정이다.

버스 전면 유리에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고, 전광판에는 "4월부터 노선별 순차 도입"이라는 문구가 안내됐다.

현금통이 철거된 버스 계단 옆 발 디딤 공간은 이전보다 여유공간이 생긴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버스 승객들은 교통 카드 이용자들로 큰 혼란은 없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현금 이용률은 높지 않다. 지난 2022년 2.9%에 불과했지만 이마저도 2.3%(2023년), 1.9%(2024년)로 떨어지더니 올 1월에는 하루 평균 1.6%(전체 이용 25만1499건 중 4153건)까지 떨어졌다. 승객 100명 중 1~2명 정도만 현금을 내고 탄다는 얘기다.

첨단 94번 운전기사 박용성(65)씨도 이날 승객들을 향해 "현금함 오늘부터 없어요"라고 외쳤다. "만약 현금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시민들에게 박 씨는 준비해둔 '요금 계좌이체 안내서'를

광주 92·94번 등 7대 현금함 철거 현금 이용률도 1.6%까지 떨어져 현금 없으면 계좌이체 안내지 전달 기사가 선불 교통카드 판매 불편 "카드 잔액 없을 땐 어찌나" 걱정도

꺼내 보여줬다.

안내서에는 이용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정류장 정보 등을 직접 기입하고 이체 요청에 동의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었다.

박씨는 "현금이 없는 경우엔 계좌이체를 안내하거나 선불카드 안내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운전 중에 하기가 번거로운 건 사실"이라며 "노인분들은 그 종이를 가져가시다가 가끔 잊어버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첨단 노선의 경우 산단이 많아서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타는 점 때문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출신 외국인 승객들에 대한 안내도 버스 기사 몫이다.

박씨는 "1월부터 계속 안내했더니 현금 내는 승객이 점점 줄었다. 한 달 전만 해도 하루에 1000원, 2000원 정도는 현금이 나왔는데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설명했다.

첨단92번을 운전하는 이상수(62)씨도 버스 운행 준비 과정이 평소와 조금 달라져 어색했다고 웃어보였다. 평소 출근 시 매일 하는 음주측정 후 현금함을 챙겨 나가야 했는데, 이날은 그 절차가 빠져



광주 시내버스가 1일 현금함을 철거한 뒤 첫 운행을 시작했다. 첨단94번 유리창 앞 '현금없는 시내버스'라는 현수막(왼쪽)이 붙어있고, 기존 현금함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이다.



허전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오늘은 돈통을 안 들고 차에 탔다. 뭔가 이상하더라"며 "비나 눈 오는 날엔 우산을 든 채 현금통, 잔돈, 일지까지 다 들고 나가야 했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은 없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이씨는 제도 시행 초기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현금만 들고 탑승한 승객에게 직접 교통카드를 판매하는 역할까지 맡다 보니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현금 정산 절차를 없애 운전원이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별도의 일이 생긴 셈이다.

버스 내 판매 선불교통카드 구매 금액은 5000원으로 잔액 2500원이 충전돼있다.

불안감을 내비치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김금례(여·72)씨는 "버스카드에 한 번에 오만 원 충전해서 다니는데, 가끔 잔액이 다 떨어지면 현금으로 내야 할 때가 있다. 현금을 아예 못 쓰게 되면 걱정이 된다"고 했다.

시내버스 운전원들은 그동안 잔돈 분실, 민원 대응, 장비 반납 등으로 인한 부담을 꾸준히 호소해왔

고, 이번 제도 시행으로 물리적·정서적 피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현금함 유지비와 인건비 등으로 연간 약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버스 내 선불교통카드 판매는 운전원의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행 초기 일정 기간 운영 후 실효성 등을 검토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방의회 의장단 돈선거 '비리 복마전' 언제까지...

나주시의원 16명 중 10명 입건 여수·고흥 등 금품수수 의혹 반박 "당 차원 적극 근절 나서야" 지적

수십 년의 지방자치 역사 만큼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돈 봉투 전달 사건도 지방의회의 달라지지 않는 구태로 자리잡았다.

16명의 기초의원 중 10명이 의장선거와 관련된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되면서 무더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나주시의회도 마찬가지다. 매년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때면 터져나오는 감투싸움, 갈등, 돈 봉투 전달 의혹 등이 여지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16년에는 여수시의회와 고흥군의회 의원들이 의장 선거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가 수사를 받았고 2020년에는 구례군의회에서 의장 선출을 하면서 군수 개입설, 금품 살포설 등 소문이 돌다 정당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의 경우 민주당 중심의 운영 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나서 근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나주시의회 10명의 의원들이 지난해 8월부터 뇌물공여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의원들이 지난해 6월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밀어주기 위해 500~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의원들은 주거지·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두 차례나 당했다. 의장 선거일 전후로 통장에 거액이 오간 정황도 파악되면서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특정 의장 후보가 '자기 편' 의원들 9명에게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의

장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 편' 만들기엔 나서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지 않았겠냐는 소문. 다른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장 표를 줄 테니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물밑 거래'도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더해지고 있다.

의회를 대표하면서 단체장·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갖는 것 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개입하는가 하면, 각종 개발사업 등 인허가 과정에서도 직간접적 청탁·압력 등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공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비리 복마전'이 반복되는 데 비해 당 차원에서 대응은 지나치게 태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 A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전두환 장남 출판사 북플러스 결국 파산 선고

유동성 위기를 겪던 출판도매업체 북플러스가 결국 파산했다.

1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는 지난달 28일 북플러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북플러스는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66)씨가 1998년 세운 출판 회사로 교보문고, 웅진북센, 한국출판협동조합에 이어 4번째로 큰 도매업체다.

북플러스는 최대 주주 A씨가 회사 주거래통장을 압류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지난 2월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다.

이달 말까지 도래하는 거래 출판사 만기 어음 규모가 약 4억 5000만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이 예상되자 지난 2월 2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의사 국가시험 실기문제 유출 응시생 400여명 무더기 적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 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은 지난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 중 13.9%에 달한다.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 나눠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치러진다.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범행 방법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지난해 11월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